

돼지 적리 원인체 및 감염경로

혈청 검사팀

돼지 적리 원인체 및 감염경로

1. 정의

돼지의 장관 전염병으로서 대장의 염증과 혈액성 하리가 특징이며 *vibrionic dysentery*, *bloody scours*, *bloody dysentery*, *black scours* 또는 *ucohemorrhagic diarrhea*로 불려 지기도하는 질병으로서 한번 감염되면 상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발육지연, 사료효율저하 등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중요하다.

2. 원인체 및 감염경로

원인체는 3~4회 꼬인 나선형의 스피로헤타 세균인 *Serpulina hyodysenteriae*이고, 이 균은 그람음성인 혐기성균이며, 길이가 6~8.5 μ m, 직경이 320~380nm이고 운동성이 있고, 혈액한천 배지상에서 강한 용혈성을 볼 수가 있다. 항원성으로 보아 9가지 혈청형이 보고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A 및 E 혈청형이 유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돼지에 전염하는 주요 경로는 이병에 감염한 돼지의 설사 분변이나, 보균하고 있는 돼지의 분변에 오염된 사료나 물 등을 섭취하였을 경우이며 농장간에는 보균 돼지의 입식이나 사육자의 이동, 감염 돈사의 하수구나 돈사에 출입하는 개 또는 쥐가 이 균을 매개한다고 추정하고 있고, 또한 파리도 균을 운반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. 한편 수도물에 10배 희석한 설사분변 중의 적리균은 5°C에서 61일간 생존되고 또한 25°C에서는 7일간 생존이 가능하며, *S.hyodysenteriae*는 혐기성 세균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.